



2022년 8월 7일(제1100호) 연중 제1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슬기로운 여름휴가”

무더위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휴가철이라 이곳저곳에서 피서를 즐기며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노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신자로서 최소한 지키면 좋을 주일미사 참례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름휴가를 즐기더라도 근처에 성당을 찾아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모습이 오늘 복음 속 올바른 종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복음은 주인을 모시는 종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모습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마음먹은 이들은 자신의 편의를 중시하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지기 중처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더운 낮이 아니라 시원한 밤에 혼인 잔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 잔치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고, 주인을 마중하기 위해 깨어 기다리는 일은 충실한 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이해되었습니다.

복음에서는 바람직한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으며,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 기다리는 사람”이 올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다고 종들 마음대로 여행가고, 음주가무를 즐기며 정신없이 논다면 어

떻게 되겠습니까! 밤늦게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주인을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휴가철을 맞아 개인적인 여가 생활로 인해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시간을 놓친다면 주님께서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이 되도록 합시다.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담당하는 매니저들의 삶을 보면 긴장의 연속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으로 인해서 유명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키는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고 나태하게 잠을 잔다면 도둑은 모든 돈을 털어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도둑이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기에 늘 깨어 긴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칫 여름휴가와 피서를 핑계로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심을 잘 지켜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한지원(기브리엘) 신부
이기지(제27보병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지혜 18,6-9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제 2 특 시 히브 11,1-2.8-19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 복 음 루카 12,32-48
-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새 번째 시

우리가 무사히 조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신부님께 전한다면 이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실 신부님의 기쁨에 못지않게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뻐 용약하는 마음으로 더 자유롭고 더 자세하게 신부님께 서한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발걸음은 가볍게 뛰어 달리고 있으나, 얼굴은 무겁게 폭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막중한 무게에 짓눌리고 극도의 빈곤과 허약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풍부한 자비심에 희망을 갖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마태 10,19)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한다’ 는 것은 비단 설교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의 빈곤과 허약을 의식하고 있는 저는 매우 두렵고 겁이 납니다만, 하느님께 바라는 희망으로 굳세어져서 방황하지 않으렵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 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코린토1, 2,2) 저의 이 서원을 신부님의 기도로 굳혀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마우신 신부님을 통하여 신학교의 모든 신부님들과 특히 바랑(Baran) 신부님께 깊은 인사와 감사와 순종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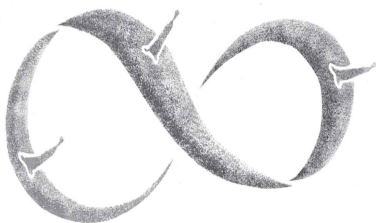
공경하옵 스승님께, 지극히 비천하고 미약하며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엎드려 절합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돌고 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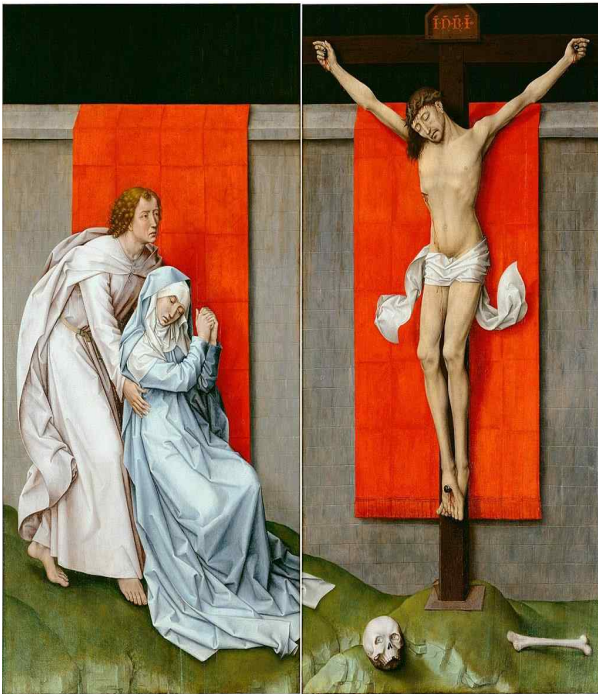
언제까지 그리 제자리만
맴돌고 있을 것인가.

남이 정해준 길을 박차고,
하늘길을 따라 한걸음.

언제까지 그리 남들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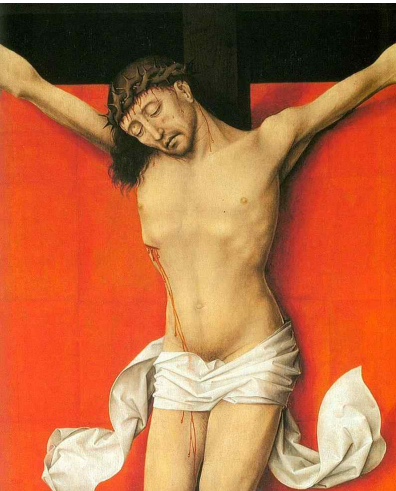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이덴의 본 2폭 제단화는 어떠한 장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현대의 우리 눈으로 보아도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이다. 그림에는 깊은 밤을 연상시키는 검은 배경에 회색 벽, 그리고 그 위에 둘러진 붉은 천(인물들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한다)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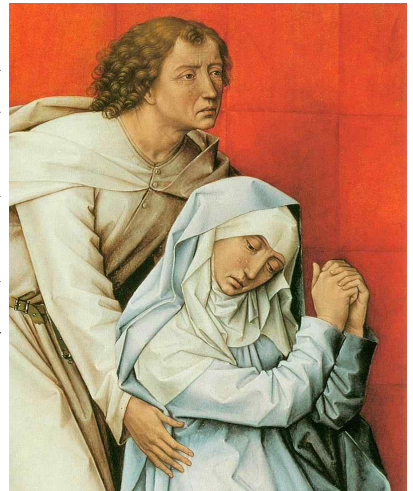
왼쪽 제단화에는 슬픔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성모님과 그런 성모님을 부축하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져 높이 들어 올려지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그런 십자가 받치에 나뉘는 해골 조각은 이곳이 해골산임을 상징한다.

로히어르 판 대르 바이덴, 1460년 작
나무 패널 위 유화
왼쪽 패널(180.3×93.8cm), 오른쪽 패널(180.3×92.6cm)
필리델피아 미술관



머리의 기사관과 가슴에 찢린 상지에서 놀리나린 피기 보인다.

동시대에 그려지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다른 예수님 그림들은 각종 등장인물로 꽉 차 있다. 슬픔에 흐느끼는 인물들이나, 시체를 내리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을 바라보는 병사들 등등. 그러나 이 그림은 최소한의 인물들과 절제된 등장 소품 및 배경으로, 수난과 구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모님과 사도 요한의 눈에서 놀리나린 눈물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של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해군중앙 김중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8월 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용성대(20전투비행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8월 11일(목)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기쁨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